생의학산업 벨트를 가다 화순

❷ '천혜의 웰빙숲' 모후산

2천ha 생태관광 테마파크 황토길 '초록 샤워' 심신치유

인삼 시원지 복원 등 16개 사업
역사·생태·문화체험 공간 조성
바이오 산업 연계 보건관광 명소

'어머니 품속 같은' 화순군 남면 모후산(해발 918.8m)이 화순군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고려인삼 시원지(始原地)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브랜드 가치창출과 새로운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36억원을 투입해 남면 남계리~유마리, 동복면 유천리 일원 2천372ha에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에 나섰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에 역사·생태·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해 화순의 대표적인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구상이다. 자연 숲을 이용한 생태숲 조성을 비롯해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 산림 소득작목 파종, 한약초 재배, 전원·휴양시설 조성, 내남천 정비, 강우레이더 설치 등 16개 사업이 골자를 이룬다.

◇편백나무 '명품 숲길'= 유마리에서 집게봉 방향 임도를 따라 올라가면 적송(赤松)과 40~50년생 편백나무가 어우러진 '명품 숲길'에 다다른다.

오솔길 바닥은 숲 가꾸기 과정에서 나온 목재를 파쇄한 칩이 깔려있어 푹신한 느낌을 준다. 길 양옆으로는 올해 난대 상록수인 황칠나무를 새롭게 심었다. 또 허리를 숙여 가만 바닥을 살펴보면 녹차 나무와 맥문동이 보기 좋게 심어져 있다. 사업이 진행되며 등산객이나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던 곳이 비로소 '웰빙 숲'으로 변신한 것이다. 그 결과 모후산은 지난해 산림청과 생명의 숲이 주관하는 제 9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숲길부문에서 '아름다운 어울림상'(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남도 공무원연수원을 비롯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시청 등 전국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필수 현장견학 코스가 됐으며 학생들의 수학여행 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모후산 피톤치드 연평균 농도가 전남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밝혀져 아토피 체험장으로도 눈길을 끌고 있다.

편백나무 숲길에서 유마사로 이어지는 1㎞여 길이의 산길은 현재 황토길 조성이 한창이다. 숲길을 따라 걷노라면 너덜겅 바위 위를 뛰어다니는 귀여운 다람쥐와 눈앞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산새, 비탈에 무리지어 핀 피나물 등 야생화, 만물상을 연상시키는 큼지막한 응회암 바위, 참나무 숯을 굽던 숯가마터와 만난다. 나무 역시 자연스럽게 참나무, 단풍나무, 산딸나무, 고염나무, 산벚나무 등 다채로운 '초록빛깔'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전직 교사출신인 최종채(67) 군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하며 맛깔스런 '해설'을 덧붙여 주기 때문에 평범한 바위와 나무 한 그루도 새롭게 보인다.

숲속 길에 자리한 유마사는 백제 무왕시절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천년고찰로 한국전쟁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이 위치해 전화(戰禍)를 입었으나 해련부도와 경헌장로 사리탑, 가안선자지탑 등 많은 문화재를 품고 있는 단아한 절이다.

모후산 유마계곡을 가로지르는 '무지개 다리'.

고용길 군 산림소득과 자원계장은 "황토길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갈 수 있게끔 배려해 경사를 6도로 완만하게 만들고 있다"며 "숲속의 다양한 나무들과 특이한 형상의 바위를 활용해 '스토리가 있는 숲길'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자원을 소득작목으로 개발= 편백나무 '웰빙 숲' 외에도 ▲고려인삼(동복삼) 시원지 복원 ▲생지황 등 한약초 재배 ▲옥잠화·맥문동 등 야생화 단지 조성도 지역 소득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조선 홍봉한 등이 지은 '증보 문헌비고' 등에 고려인삼이 첫 재배된 곳을 모후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군은 고려인삼 개삼(開蔘)터 복원에만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해 '산죽 산양삼'을 확대재배하고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해 화순 대표 특산물로 육성,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서울 aT센터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을 위한 국제 산삼 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다.

군은 모후산 시원지 복원과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12ha 규모의 산양삼 채종포를 조성해 묘삼을 재배 농가에 공급, 동복삼의 옛 명성회복에 팔을 걷어붙였다.

동복 유천리 일원에는 '산약초 타운'이 들어섰다. 70%가 산지인 화순에서 한약초 재배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군이 추진하는 바이오 메디컬 산업과 연계해 보건(의료)관광 등과 접목할 수 있어 적지않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남계리에서 유마리로 들어오는 4.4㎞ 길이의 내남천은 지난 2007년 갑작스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소방방재청에서 수해복구 사업비로 88억원이 지원되며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천정비와 남계~유마 군도 확포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정확한 강우량 예측과 홍수예보 발령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모후산 정상부에 강우 레이더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모후산 고려인삼 시원지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는 관광단지와 같은 개발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복원 및 보존위주의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화순이 '에코시티'(ECO CITY=생태도시)로 도약하고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화순=조성수기자 css@

수십 년된 적송과 편백나무가 조화를 이룬 화순 남면 모후산 '웰빙 숲길'. 4.5㎞의 탐방로를 따라 걷노라면 다양한 나무숲과 바위, 모후산이 품고 있는 역사 등을 음미할 수 있다.